

2019년 2월 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페이스북 급등에 힘입어 상승

트럼프 “가까운 시일안에 시진핑 주식과 정상회담을 개최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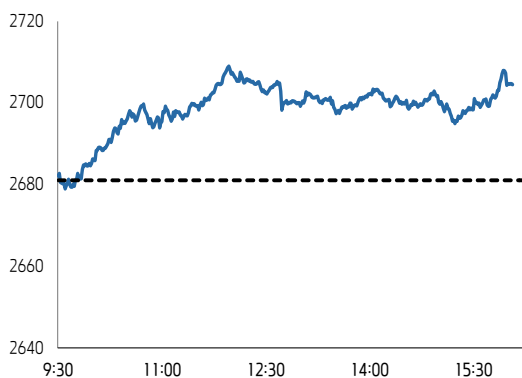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10.82%)과 GE(+11.65%)의 급등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과 2월말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 다만, 금융주가 낙폭을 확대하고 오후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자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다우 -0.06%, 나스닥 +1.37%, S&P500 +0.86%, 러셀 2000 +0.83%)

미 증시는 ①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②미·중 무역협상 영향을 받아 변화. 전일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10.82%)이 급등하자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 상승을 주도. 더불어 장 시작 전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GE(+11.65%)와 UPS(+4.16%), 마스터카드(+3.48%)도 급등 하는 등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을 받은 양상. 특히 마스터카드가 연말 쇼핑시즌 매출 급증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아마존(+2.89%)도 상승. 반면, FOMC 이후 금리인상 시기 지연 및 순이자 마진 둔화 우려가 높아진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종목별 개별 이슈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임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협상 중이다. 많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희망컨대 해결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트윗을 남김. 한편, 가까운 시일에 시진핑 주식과 만남을 가질 것이며, 이곳에서 최종 타결을 볼 것이라고 언급.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2월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다만, “중국은 금융서비스, 제조, 농업 등에 대해 개방을 해야 하며, 이것 없이는 협상은 불가하다” 라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압박은 지속.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 역사상 가장 큰 무역협상을 진행 할 것이며 안되면 연기할 것이다” 라고 주장. 이는 휴전기간 연장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	변화	국가	지수	변화
지수	Close	D-1	지수	Close	D-1
KOSPI	2,204.85	-0.06	홍콩	27,942.47	+1.08
KOSDAQ	716.86	+0.22	영국	6,968.85	+0.39
DOW	24,999.67	-0.06	독일	11,173.10	-0.08
NASDAQ	7,281.74	+1.37	프랑스	4,992.72	+0.36
S&P 500	2,704.12	+0.86	스페인	9,056.70	-0.16
상하이종합	2,584.57	+0.35	그리스	634.64	-0.16
일본	20,773.49	+1.06	이탈리아	19,730.78	-0.2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강세

페이스북(+10.82%)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이에 힘입어 알파벳(+2.54%), 트위터(+4.03%) 등 인터넷 관련주도 동반 상승 했다. 한편, 장 시작 전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GE(+11.65%)와 UPS(+4.16%), 마스터카드(+3.48%)도 급등했다. 특히 마스터카드가 연말 쇼핑시즌 매출 급증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아마존(+2.89%)도 상승했다. 아마존은 장 마감 후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시간 외로 하락을 기록중이다. 인텔(-0.88%)과 NVIDIA(+4.63%), AMD(+5.72%)는 경쟁 심화 우려가 부각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한편, 머크(+1.44%)는 섀다운으로 인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일부 약품에 대해 FDA가 승인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화이자(+2.98%), J&J(+1.09%), 일라이릴리(+2.50%) 등 여타 제약업종 또한 동반 상승 했다. 약국체인점인 ABC(+6.16%)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 했다. MCK(+2.62%), 카디날헬스(+2.48%)도 동반 상승 했다. 반면, FOMC 이후 금리인상 시기 지연 및 순이자 마진 둔화 우려가 높아진 JP모건(-0.87%), BOA(-2.06%), 웰스파고(-1.47%), 골드만삭스(-2.21%) 등 금융주는 부진했다. MS(-1.83%)와 듀폰(-9.23%)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45%	대형 가치주 ETF(IVE)	+0.59%
에너지섹터 ETF(OIH)	-1.34%	중형 가치주 ETF(IWS)	+0.48%
소매업체 ETF(XRT)	+0.18%	소형 가치주 ETF(IWN)	+0.51%
금융섹터 ETF(XLF)	-0.15%	대형 성장주 ETF(VUG)	+1.25%
기술섹터 ETF(XLK)	-0.11%	중형 성장주 ETF(IWP)	+0.8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44%	소형 성장주 ETF(IWO)	+1.07%
인터넷업체 ETF(FDN)	+2.02%	배당주 ETF(DVY)	+0.85%
리츠업체 ETF(XLRE)	+0.9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6%
주택건설업체 ETF(XHB)	+1.8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0%
바이오섹터 ETF(IBB)	+1.38%	미국 국채 ETF(IEF)	+0.46%
헬스케어 ETF(XLV)	+1.25%	하이일드 ETF(JNK)	+0.26%
곡물 ETF(DBA)	-0.47%	물가연동채 ETF(TIP)	+0.56%
반도체 ETF(SMH)	-0.07%	Long/short ETF(BTAL)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0.81	+0.71%	+2.51%	+8.77%
소재	333.98	-1.54%	+2.31%	+5.01%
산업재	603.74	+0.45%	+3.69%	+10.86%
경기소비재	861.45	+1.09%	+2.76%	+9.22%
필수소비재	547.94	+1.82%	+2.97%	+5.44%
헬스케어	1,047.87	+1.13%	+1.96%	+6.10%
금융	429.90	-0.27%	+0.45%	+7.79%
IT	1,163.16	-0.12%	+1.90%	+6.81%
커뮤니케이션	152.75	+3.74%	+3.75%	+8.70%
유틸리티	277.67	+2.07%	+1.20%	+5.23%
부동산	212.98	+0.95%	+4.79%	+13.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8% 하락 했으나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8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608 계약)에 힘입어 0.75pt 상승한 287.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1.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관세 발효하며 무역분쟁이 격화되었던 10 월 한달 동안 4 조원을 매도했던 외국인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11 월에는 3,500 억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특히 본격적인 무역협상이 진행되었던 1 월 한달 동안 4 조 3 천원 넘게 순매수 하는 등 무역협상에 따라 수급적인 변화가 진행된 점이 외국인 수급의 특징 중 하나였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협상 타결 지연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외국인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설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설 연휴 기간 미국의 제조업지수 및 고용보고서 결과가 발표되며,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5 일(화) 트럼프 대통령의 시정연설, 6 일(수)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 등 시장 변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대규모 인프라투자과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중국 증시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미·중 관세 발효 여파로 둔화

1 월 시카고 PMI 는 전월(63.8)이나 예상치(62.5) 보다 크게 둔화된 56.7 로 발표되었다. 이는 2 년내 최저치이다. 한편, 이런 하락 요인은 원가 압력이 높아져 판매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점이 부진요인이라고 발표되었다. 결국 미·중 관세 발효 여파로 원가 상승이 미국 경제지표 둔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11 월 신규주택판매는 전월(56.2 만건) 보다 크게 증가한 65.7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신규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12% 하락한 30 만 2,400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판매가격 하락이 판매량 급증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0 만건)나 예상치(22 만건)을 상회한 25.3 만건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하락폭 확대

국제유가는 장 초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한때 55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장 후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협상은 3월 1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달러화는 FOMC 이후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 오늘은 주택지표 개선 및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유로화가 이탈리아 경기 침체 영향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점이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전일에 이어 FOMC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지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도 하락폭 확대 요인 중 하나였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로 돌아선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FOMC 영향을 받아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FOMC 결과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 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22%, 철근은 0.76%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79	-0.81	+1.24	Dollar Index	95.575	+0.25	-1.06
브렌트유	60.84	-1.14	-0.52	EUR/USD	1.1446	-0.30	+1.26
금	1,325.20	+0.74	+3.06	USD/JPY	108.92	-0.11	-0.66
은	16.072	+0.91	+5.05	GBP/USD	1.3110	-0.05	+0.34
알루미늄	1,910.00	+0.03	+1.03	USD/CHF	0.9947	+0.05	-0.17
전기동	6,169.00	+0.54	+4.17	AUD/USD	0.7272	+0.33	+2.51
아연	2,719.00	+1.23	+2.99	USD/CAD	1.3131	-0.14	-1.64
옥수수	376.50	-1.25	-0.13	USD/BRL	3.6471	-0.90	-3.29
밀	516.50	-0.05	-0.96	USD/CNH	6.7093	-0.04	-1.26
대두	915.25	-0.62	-0.08	USD/KRW	1112.70	-0.32	-1.41
커피	105.90	+3.72	+0.57	USD/KRW NDF1M	1111.50	+0.09	-1.4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635	-4.29	-8.11	스페인	1.194	-5.80	-4.30
한국	1.997	-5.00	+0.50	포르투갈	1.617	-4.60	-3.10
일본	0.005	0.00	-0.60	그리스	3.850	-5.60	-27.50
독일	0.149	-3.90	-3.10	이탈리아	2.587	-1.00	-7.10